

寓意的 담화에 실린 인간과 시대 풍자

한국근대사와 책의 사회사 4 -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이재선

서강대 교수·국문학

신소설과 함께 한말·개화기 문학형태의 두드러진 다른 양상은 바로 愚意 또는 알레고리(Allegory)를 띤 문학형태와 戲文이다. 이중 우의란 우화, 즉 다른 것의 가탁의 방법에 의해서 추상적인 것이 의인화되거나 또는 빗대어 비유됨을 뜻하는 것으로서, 흔히 동식물에 의해서 가탁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동물과 함께 과거의 역사도 가탁되어 당면된 현재의 문제를 시사하기 위해서 원용되기 때문이다.

우리 한말 개화기 문학의 우의적인 성격과 양상은 크게 보면 역사와 동물이 가탁되는 이중성의 갈래를 지니고 있다. 과거의 역사 또는 영웅 등의 권위상에 가탁하는 역사적 우의가 이른바 역사적 상상력이 깔려있는 「愛國婦人傳」(張志淵) 「이순신전」(신체호) 등의 역사 전기문학이 그 한 갈래요, 동물을 가탁함으로써 인간과 세태를 풍자하려는 「警世鐘」(김필수) 「禽獸會議錄」(안국선) 등의 동물우화(우의)가 다른 한 갈래인 것이다. 이중 이 「금수회의록」은 개화기 문학의 우의성 내지는 우화 소설의 대표적인 모형일 뿐만 아니라, 20세기 초인 이 시기의 사회적 담화형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수용하거나 드러내주는 작품이다.

저자인 天江 安國善(1878~1926)은 경기도 安城郡 古三面에서 태어나 16세인 1894년 渡日하여 정치학을 공부하였으며, 귀국한 후 정치운동을 하다 탄로되어 진도에 유배된 바 있으며, 방면되어서는 상경하여 「大韓協會報」 「畿湖興學會月報」 등에 정치·경제·시사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外交通義」 「演說法方」과 같은 저서를 저술하였으며 「금수회의록」 및 「共進會」와 같은 소설작품을 발표하였고 1926년 7월 사망하였다. 소설가인 安懷南(본명 必承)이 그의 아들이다.

동물들 입 통해 인간세태 풍자

1908년 2월 皇城서적조합에서 발간된 「禽獸會議錄」은 표제 그대로 여러 동물에의 긍정적 인 가탁을 통해서 인간과 세태의 그릇됨이 풍자 비판되는 우의의 본격형태인데다 연설·토론 또는 회의와 같은 개화지향의 시대적 담화 양식을 그 형태로 하고 있는 점에서 사회성이나 비판적인 교화성이 아주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轉倒 또는 바호전적인 정지나 강등의 시학적 양상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여기에 등장하는 까마귀·

여우·개구리·벌·개·파리·호랑이·원앙 등 8종류의 금수의 가치가 칭찬 상승되고 있는 반면, 인간과 인간의 행위는 대비적으로 여지 없이 비하·강등되고 가치가 도립된 모멸의 대상으로 비속화되는 것이다. 작가를 대리하고 있는 작중화자의 「序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처음부터 진술되고 있다.

“천인의 말씀을 듣든지 역사를 보든지 옛적 사람은 양심이 있어 天理를 순종하여 하나님께 가까웠거늘, 지금 세상은 인문이 결판나서 도덕도 없어지고, 의도 없어지고, 염치도 없어지고, 절개도 없어져서 사람마다 더럽고 흐린 풍랑에 빠지고 헤어나올 줄 몰라서 온 세상이 다 악한 고로…… 지금 세상은 바뀌어서 금수·초목이 도리어 사람의 무도패덕함을 공격하려 하니 괴상하고, 부끄럽고…….”

이런 인용에서 보듯, 20세기초 당대적 경험 세계의 세태와 인간행태에 대한 작가의 인지는 비록 꿈이라는 몽환적인 세계로 가장시키고는 있다 할지라도 매우 부정적이다. 이와는 달리 「지금세상」과 대비되는 이전의 인간의 일련의 가치는 긍정적인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이런 상고적인 대비의 현상은 동시대의 일련의 신소설 작품들이 「이전」과 「지금」의 대비에서 주로 이전을 부정하는 「지금」에다 플러스 가치나 준거를 두고 있는 현상과는 매우 다른 대조적인 모습이다.

자유토론의 시대적 담화형식 반영

어쨌거나, 유일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는 어느날 잠속에서 「금수회의소」란 자연 속의 회의장에 입회하여 온갖 짐승들이 인간 논박을 벌리는 자유 토론장의 방청객이 되는 것으로 상황이 비롯된다. 이 토론에 앞서 ‘개 회취지’가 회장역을 하는 어떤 짐승의 개회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혀지고 있다.

“사람이라 하는 물건은 당초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특별히 영혼과 도덕심을 넣어서 다른 물건과는 다르게 하였은즉……중략……천리정도를 지키고 착한 행실과 아름다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할 터인데, 지금 세상 사람의 하는 행위를 보니……중략……외국 사람에게 아첨하여 벼슬만 하려 하고, 제 나라가 다 망하든지 제 동포가 다 죽든지 불고하는 역적놈도 있으며, 임금을 속이고 백성을 해롭게 하여 나랏일을 결단내는 소인놈도 있으며, 부모는 자식을 사랑치 아니하고 자식은 부모

1908년 2월 황성서적조합에서

발간된 「금수회의록」은 표제

그대로 여러 동물에의 긍정적 가탁을

통해 인간과 세태의 그릇됨을 풍자

비판하는 본격 우의문학이다.

한편으로 이 책은 연설·토론·회의와

같은 개화 지향의 시대적 담화

양식을 그 형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판적 교화성이 강하게

투영돼 있다.

를 효도로 섬기지 아니하며, 형제간에 재물로 인연하여 골육상잔하기도 일삼고, 부부간에 음란한 생각으로 화목치 아니한 사람이 많으니, 이같은 인류에게 좋은 영혼과 제일 귀하다는 특권을 줄 것이 무엇이오”

여기에서 파악되어 있는, 인간의 현실적인 행위양태는 정상적인 ‘天理正道’의 상태에서 전혀 이탈된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가지 안전이 전제되어 있다.

제일, 사람됨 자의 책임을 의논하여 분명히 할 일.

제이, 사람의 행위를 들어서 옳고 그름을 의논할 일.

제삼, 지금 세상 사람중에 인류자격이 없는 자와 없는 자를 조사할 일.

이런 취지와 안전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풍자가 의당 지니고 있어야 할 양방향의 위상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메레디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풍자란 사회적인 청소부의 역할과 도덕적인 중개상으로서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비판되고 청소해야 할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차디찬 냉소와 비난만이 개재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당위와 지향의 세계와 현실을 연계시키거나, 이 양자 사이에 떠 있는 ‘매듭스’ 새와 같은 연계성이 바로 풍자의 진면목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의 그릇됨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유적인 빗댐의 우의형식으로서 짐승들의 눈과 입을 가정해 끌어들이는 대비의 방법은 명암을 드러내는 점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작품은 전도와 함께 인간/짐승, 현재/과거가 철저히 서로 대비·대



조되는 구조원리에 근거되어 있다.

연설의 제1석은 ‘反哺之孝’ 즉 연설자인 까마귀의 효행을 들어서 현재 인간들의 불효를 질책한다. 즉 효행은 인간의 천리로서, 과거에는 효성의 아름다움이 많았으나, 지금은 인류사회에 효도가 없어진 것으로, 그래서 인간이 까마귀보다도 훨씬 더 저열하게 제시되고 있다.

제2석은 ‘狐假虎威’ 즉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가장한다는 뜻으로, 간사함의 표상인 여우를 등장시켜서 인간의 간사함을 공박하고 있다. 여기서 여우에 의해 인간의 간사함으로 지적되는 주요사항은 외세의존 즉 외국의 세력을 빌어 의뢰하여 몸을 보전하고 벼슬을 얻으려 하며, 외국인을 부동하여 제나라를 망하고 제 동포를 압박하는 것, 그리고 대포와 총의 무력의 힘으로 남의 나라를 위협하고 속국과 보호국을 만들려 하는 것, 인간의 음란함 등이다. 즉 외세의존적 사대성, 침략적인 무력, 음란성이다.

제3석은 ‘井蛙語海’ 즉 우물안 개구리가 바다를 말한다는 속어의 패러디화를 통해서 개화인들의 내실이 전혀 없는 허식적인 대외관, 봉당과 권세의 남용, 천박한 지식을 비판한다.

“제 나라 형편도 모르면서 타국형편을 아노라고 외국사람을 부동하여 임군을 속이고 나라를 해치며 백성을 위협하여 재물을 도둑질하고 벼슬을 도둑하며 개화하였다고 자칭하고…….”

“사람은 한번만 벼슬자리에 오르면 봉당을 세워서 권리다툼하기와 권문세가에 아첨하러

다니기와 백성을 잡아다가 주리를 들고 돈 빼앗기와…….”

“저희들이 천박한 지식으로 남을 속이기를 능사로 알고 천하만사를 모두 아는 체하니, 우리는 이같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오.”

애정윤리 타락상도 통렬하게 비판

제4석은 ‘口蜜腹劍’, 입에 꿀을 발랐으며 배속에는 칼을 품었다는 표리부동의 지적으로서 벌을 등장시켜 인간을 비하시킨다. 벌은 자신의 입의 꿀과 배의 칼침은 양식과 정당방위의 무기인 것으로 옹호하는 반면, 인간의 표리는 거족의 ‘사람’과 실상의 ‘豺狼’과 같은 것으로 보아 인간의 기만적인 허위성과 약탈적인 약육강식을 비판한다.

“약한 자의 고기는 강한 자의 밥이 되고, 큰 것은 작은 것을 압제하여 남의 권리를 누탈하여 남의 재산을 속여 빼앗으며 남의 토지를 앗아가며 남의 나라를 위협하여 망케 하니…….”

“사람같이 입으로는 꿀같이 말을 달게 하고 배에는 칼같은 마음을 품은 우리가 아니오.”

이에서 보면 인간은 전혀 표리가 다른 사악하고 공격적인 대상일 뿐인 것이다.

제5석은 창자가 없는 공자(無腸公子)인 게를 등장시켜서 관료의 탐욕과 부패함 그리고 외세에 대해 대응하는 힘을 잃고 압박에 순응하는 일반 백성들의 무주체적이고 무기력함을 공격한다. 인간이 기괴하게 추루화된다.

“반관 경륜이 임금 속일 생각, 백성 잡아먹을 생각, 나라 팔아 먹을 생각밖에 아무 생각 없소. 이같이 썩고 더럽고 똥만 들어서 구린 내가 물론물론 나는 창자는 우리는 없는 것이 도리어 낫소.”

“남의 압제를 받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깨닫고 분한 마음 없고, 남에게 그렇게 욕을 보아도 노여할 줄 모르고 종노릇 하기만 좋게 여기고 달게 여기며 관리에 무례한 압박을 당하여도 자유를 찾을 생각이 도무지 없으니 이것이 창자있는 사람들이라 하겠소?”

그릇된 탐욕과 반비례하여 주체적인 자아성이 결여되어 있는 인간 세태가 신랄하게 해부된다.

제6석은 ‘營營之極’인 파리를 등장시켜서 인간의 소인배적 왜소화, 신의없음과 사리사욕을 지적한다.

“쓸개에 가 붙고 간에 가 붙어 요리조리 알

씬알씬하는 사람 정말 밍기도 밍습니다.”

“사람들은 리끝만 보면 형제간에도 의가 상하고 일가간에도 정이 없어지며, 심한 자는 서로 골육상쟁하기를 예사로 하니 참 기가 막히오.”

곧 私利를 위해서 인간은 신의마저도 쉽게 버리는 대상으로 왜소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는 오히려 이런 인간들에게 연설의 말미부분에서 ‘쫓아버려라’를 반복하면서 인간에게 설교까지 하는 가르침의 높은 대상으로 자리하게 되기도 한다. 칭찬받아야 할 대상이 전도되고, 비난되어야 할 대상이 오히려 평가되는 이런 가치의 전도현상은 분명히 풍자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제7석은 ‘苛政猛於虎’ 즉 까다로운 정사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는 비평의 마당이다. 여기에는 호랑이가 등장한다. 무섭고 맹렬한 이 호랑이를 통해서 탐관오리들의 횡포를 풍자한다. 정치풍자의 성격이 짙은 부분이다.

“사람들은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으며, 죄없는 백성을 감옥에 몰아넣어서 돈 바치면 내어놓고 세없으면 죽이는 것과, 임금은 아무리 인자하여 赦典을 내리더라도 법관이 用事하여 공평치 못하게 죄인을 조종하고, 돈을 받고 벼슬을 내어서 그 벼슬한 사람이 그 밀천을 뽑으려고 음흉한 수단으로 정사를 까다롭게 하여 백성을 못견디게 하니, 사람들의 악독한 일을 우리 호랑이에게 비하여 보면 몇만 배가 이 될는지 알 수 없소.”

제8석은 ‘雙去雙來’, 둘이 함께 가고 온다는 뜻의 장으로 원앙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 장의 화자는 부부의 사랑이 긴밀한 것으로 상징되는 원앙이다. 부부의 애정윤리가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를 비판하고 있는 이 장은 동시대의 선구적인 페미니즘의 양상이 잠재되어 있기도 한 장이다. 그래서 인간이 처첩을 두는 것에서 비롯하여 간음과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애정윤리의 타락상들이 자세하게 지적된다.

일제에 의해 금서로 분류되기도

이런 여덟 짐승들이 순차적으로 등장하여 고정화된 자신들의 마이너스 이미지를 교정 상승화시키는 대신에, 인간을 철저히 비하시키고 하강·추류화시키는 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폐회’란은 이 회의를 방청자의 입장에서 경험했던 유일한 인간인 ‘나’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서 결말이 나고 있다.

“사람이 떨어져서 짐승의 아래가 되고 짐승이 도리어 사람보다 상등이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예수씨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 이 아직도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니, 사람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구원 얻는 길이 있다 하였으니 이 세상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는 길이길이 생각하시오.”

일련의 인간의 가치전도를 작가는 기독교적인 양심의 윤리 회복에서 가능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각 장면들을 살펴보았듯이, 크게는 8개의 짐승의 표상과 일치하는 인간과 세태의 모순과 부정적인 양상들이 열거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 길지 않은 이 작품에는 인간의 인성론적 측면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부정적인 것 또는 악의 속성이 열거됨은 물론, 당대의 바르지 못한 정치적 현상과 부정부패한 상황 등 인간과 사회의 거의 모든 어두운 시대적 단면과 면모들이 총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이 우화 속에는 한 시대의 사회·역사적인 단면이 예각적으로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 열거함으로써 개별의 항목을 적출해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대의 소설인 신소설도 그 한 면모에 있어서는 사회개혁을 위한 정치소설적인 목적성의 문학이었듯이, 중국 清代 말의 신소설도 역시 정치개혁적인 사회개혁의 목적론과 깊이 연계되어 있듯이, 이 작품은 인간과 세계를 개조시키려는 사회사적 목적성이 깊게 투영되어

있는 작품이다.

문제는 바람직한 지향 가치의 모형화를 상당히 상고적인 역사에의 재귀 내지는 소급주의에서 찾고 있는 점일 것이다.

어쨌든 우의적인 소설의 압권으로서 평가되는 이 책은 그 통렬한 풍자 때문에 수난도 적지 않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책이기도 하다.

朴殷植의 「한국통사」 제 52장 「韓人之教育掃地」에 의하면 일제에 의해서 收燬의 불길속에 던져진 책의 하나이었기 때문이다.

“初等本國歷史地誌, 中等本國歷史地誌, 幼年必讀, 東國史略, 女子國文讀本, 乙支文德傳, 李舜臣傳, 國民須知, 大韓地誌…夢見諸葛亮, 禽獸會議錄, 演說法方…去年之忘編……”

그러니까 이 「禽獸會議錄」은 일제의 소각 처분을 이겨낸 이 시대의 비판의 육성이 보존되어 있는 귀한 문화사료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

초판 100만부 돌파!!

언제나 우리는
100만부를 목표로 100만불짜리 일을 시작하지요

창조적 두뇌는 다르다.

그리고

침묵과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

표지디자인 • 본문디자인 • 광고디자인 • 광고카피 • 일러스트레이션

Tel. 365-1214/5, Fax. 365-1215

다름
기획

마포구 아현동 437-3 고려아카데미텔 1627호